

제194회 중앙종회 임시회 인사말씀

산빛이 푸름을 더해가고 들녘의 생명들도 여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 8월의 뜨거운 햇볕과 촉촉한 비가 더해지면 산과 들의 생명들은 튼실한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 종단의 각종 사업들도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이때, 종단의 중요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한데 모이신 중앙종회 의장 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종회에서 다뤄질 종헌 개정안과 총림법 개정안 등은 우리 종단의 화합과 산중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 사항입니다. 종헌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의 제안에 집행부의 의견도 보냈습니다. 많은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내용 위에 의원스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얹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신규 총림 3곳의 방장 추대 건을 제출했습니다. 산중의 어른을 여법하게 모실 수 있도록 잘 살펴서 추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글 천수경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자성과 쇄신 결사 차원에서 시작된 의례의식의 한글화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찰에서의 일상적인 의식은 모두 한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이 더욱 쉽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신도들이 그 참 뜻을 보다 빠르게 깨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처와 보살이 제 모습을 숨겨 중생들의 곁에서 화광동진(和光同塵)하듯, 우리 종단도 이제 시대와 역사의 부름 앞에 기꺼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 낮고 겸손한 승가, 친절한 불교의 모습으로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는 6월 30일이면 종단 쇄신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승풍실추 사건으로 종단이 안팎의 신뢰를 잃었을 때 쇄신위원회는 종단 구석구석을 살펴 많은 쇄신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각종 선거제도와 선출제도 정비를 비

롯데 승가청규 제정, 호법제도, 복지제도, 종무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여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쇄신위원장 밑을 대종사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예를 드립니다.

제33대 총무원장 소임을 맡으며 그동안 음수사원(飲水思源)의 마음으로 소임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습니다. 제 소임기간 동안 조계종은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문제 등 사회적 소통에 있어 종단적 차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승불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기존의 승가교육제도를 전면 개편해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를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주지인 사고과제도, 교구행정책임제, 사찰 재산 망실을 방지하는 대법원 예규 제정 등 종단 주위에서 아이디어나 필요성으로 회자되던 종책 과제를 종무행정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자성과 쇄신 결사를 통해 종단 운영의 틀을 개선하고 사부대중의 의식 변화에 물꼬를 틔웠습니다. 이미 언급한 의례의식의 한글화 외에도 사찰 재정합리화와 운영위원회 강화, 법인관리 제도 마련, 전문 종무원 양성 등 불교 변화의 첫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불교중흥의 씨앗은 뿌려졌고 그 싹은 곳곳에서 움틀 것입니다. 자성과 쇄신 결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께서 든든하게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2013)년 6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